

P2P대출 점검회의 차관님 말씀자료

부위원장님 인사말씀

- 안녕하세요?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.
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최근 P2P대출 관련 부실증가,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
 - 국무총리께서도 지난 6.5일 국무회의에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이 협조하여 P2P대출에 대한 관리·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신 바 있음
 - 이에 검·경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코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음
- 우리나라 P2P대출은 '06년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왔음
 - P2P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법에 의해 사업·영업구조가 비로소 창설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구조를 모색한 결과로써 형성된 것이며,
 -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, '연계 대부업자'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'원리금수취권'에 투자하는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잡았음
 - 이러한 구조는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며,
 -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

□ '15년 이후 P2P대출은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음

- 이에, 금융당국은 '이용자 보호'를 통한 '건전한 성장'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'가이드라인'(행정지도)을 시행하고,
- 아울러, 최소한의 금융감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록·감독 대상이었던 '연계대부업자'를 금융당국의 직접 관할로 변경
 - 연계대부업자와 달리 P2P대출업체는 여전히 비금융기관(통신 판매업체)으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한계임

※ ('17.2.27일) 가이드라인 시행, ('18.3.2일)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

□ 사적 거래에 불과했던 P2P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, 금융당국 등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 규율을 적용해온 결과,

①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입*하고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으며**,

* 업체수 : ('15.말) 27개사 → ('16.말) 125개사 → ('17.말) 183개사 / ('18.5.말) 금융위 등록 178개사

** 누적대출액 : ('15.말) 0.04억원 → ('16.말) 0.6조원 → ('17.말) 2.3조원 → ('18.5.말) 3.5조원

-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,
-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 금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됨

② 한편으로는 진입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구분이 어려워지고,

-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
- 특히, 최근에는 허위대출,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

□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P2P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,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“신뢰회복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

○ 이를 위해, 금융당국은 검·경과 협력하여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·처벌해 나가는 한편,

-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,

-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할 것임

○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업계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신뢰 구축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

-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

- 아울러,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“투자”라는 것을 명심하고,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P2P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할 필요

□ 오늘 이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검·경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,

○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
○ 앞으로도,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

< 기자 퇴장 >

부위원장님 마무리말씀

-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검찰과 경찰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
-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금융당국과 검·경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며,
 - 앞으로 실무적으로도 금융당국과 검·경이 하나가 되어 투자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